

한국의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

강 문 규*

- I. 한국사회와 청소년
- II. 한국의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
- III. 청소년단체의 활성화 방안

I. 한국사회와 청소년

1. 현대사회와 청소년

산업화와 도시화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사회속에서 청소년은 과도한 사회변동의 소용돌이를 직접 체험하면서 성장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역할 기능면에서 주변 인적 위치에 보다 오래 머물면서 까다로운 사회화의 학습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과제는 현대사회에 이르러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의 청소년은 청소년이라는 세대가 하나의 특징적인 인구집단으로 등장함으로써 이른바 「현대사회속에서 새롭게 탄생된

청소년, 또는 「새로운 종 *A New Species*」이라고까지 일컬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은 현대 문명사회가 만들어낸 정치 사회적, 문화적 집단으로서 그들을 보는 관점도 현대사회라는 맥락속에서 재정립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모습으로 사회에 등장하여 있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문제는 성인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 사회로부터 바르게 인식되고 파악되기도 전에 언제부터인지 청소년은 퇴폐와 반항, 방종과 탈선의 세대로 낙인이 찍혀가고 청소년문제 역시 사회적 걱정거리로만 오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를 사는 청소년의 생각과 반응들이 기존의 가치규범이나 질서에 입각하여 볼때 현저하게 빛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양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청소년이나 청소년 문제가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이해되지

*대한 YMCA 연맹 사무총장

않고 있음을 역으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청소년은 본질적으로 순수하고 발랄한 세대이기에 우리의 사회문화적 전통은 이들 젊은이를 소망스런 측면에서 청년 또는 청소년이라 부르게 하였던 것이며, 청소년이나 청소년 문제가 각별한 사회적 관심과 대처를 필요로 할만큼 사회문제화된 요인도 사회 그 자체가 변동을 거듭하고 변모하는 과정과 결과로서 파생된 것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청소년 자체로부터 발생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사회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개개인 모두가 생명의 존엄성을 부여받고 있는 한 인간이며 가정의 보배로운 자녀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련성에서 보면 국가사회의 장래를 도맡게 될 소망스런 내일의 주인공들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가정이나 국가사회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청소년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우선의 과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도 그 본래적 개념은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바람직한 사회화의 길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보다 나은 인간적 요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인가」라는 책임 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오늘날 옹호되고 있는 소위 청소년문제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와 시민사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하리라고 본다.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문제에 관하여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는 학자들 중에는 소위 사회속에서 문제시 되는 청소년문제란 현대사회가 갖

는 구조적 모순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상황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사회가 '지속된다면 그 근본적이며 완벽한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진단하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속에서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소년문제도 다른 사회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대상(청소년)과 그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들에게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최선의 방안들을 강구해서 계속적으로 접근해 간다면 현재의 상태보다는 보다 나은 국면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원화된 오늘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나 사회문제의 요인들이 복합적인 만큼이나 현대사회의 산물로서의 청소년과 이 속에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문제 역시 매우 복잡적이다. 그것은 다른 사회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인 공식의 틀속에 있지도 않고 특정공식으로 해결될 만큼 단순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오늘의 청소년을 건강하게 육성하고 다종다양한 청소년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정, 시민사회, 국가 전반적인 사회 제역량과 힘을 모두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한국역사속의 청소년

적어도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청소년운동을 이야기 한다면 한국에 있어 청소년운동의 기원은 구한말로 소급되지 않을 수 없다. 서구세계 일반과는 다르게 제3세계 청소년운동이 갖는 특징은 공통적인 식민역사에 기인하는 민족주의적 자기 지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구한말 우리의 청소년층을 비롯하여 청장년층까지 확대되는 광의의 의미에서의 청소년운동이 국권 상실의 위기에 처하여 이에 대응하는 양상으로 출현하였다. 엄밀하게 말하여 우리 역사속에서 청소년의 발전과 그 중요성에 대한 파악은 국권상실이라는 위기앞에서 이를 타개할 기성 사회층의 무력함과 함께 새로운 민족사회의 지도력으로서의 청소년의 위치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면서부터 일어난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오늘 청소년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속에서 늘 반성적으로 검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1) 구한말 애국계몽운동과 민족교육

구한말의 애국계몽운동은 선각자적인 근대의 지식인들의 자생적인 운동으로 출발되었으며 이들은 민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방편으로서, 또한 교육구국의 이념속에서 조선조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던 청소년층을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민족교육, 사립학교운동을 전개하였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운동이 민(民) 주도성이라는 특징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제도교육의 기회는 사회적으로 특수층의 자녀들에게 국한되었으며 그러한 교육의 힘이 결국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민족의 실체인 민(民)은 자생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는 길로써 청소년층의 교육이라는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다. 크게 보아 이러한 교육운동은 구한말 개화운동과 함께 들어온 기독교계 미션스쿨운동이라는 흐름과 순수하게 자생적인 사립학교운동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전자가 민족의 문화적 역량의 취약함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문화의 도입속에서 위기타개의 힘을 배양해야 한다는 일종의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의 연장선상속에서 수용된 것이라면 후자는 민족주의의 순수한 발양속에서 소박하게 전개되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양자는 충분히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이러한 운동의 위험성을 일찍부터 감지하고 있었던 일제의 교육정책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다. 일제말에 가서는 결국 미션계 학교의 교육조차 말살되고 말았지만 상대적으로 자생적인 사립학교운동에 비하여 미션스쿨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민족역사속에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한계로 남게 되는데 이 점은 해방후 우리의 근대의식이 외세에 대한 성숙된 독일의식으로 발전하지 못한 데에 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 물론 일제하에 청소년운동은 청년학생운동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근대적인 힘의 배양이라는 민족동력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그것은 2.8 독립선언과 3.1운동, 6.10만세, 광주학생의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근대사의 굵은 획을 긋는 사건들의 흐름속에서 면면히 계승되었으며, 다른 여타의 사회운동들이 사회세력의 결집에 늘 취약하여 민족해방운동을 범민족적인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었던 데에 비하여 청소년운동은 그것이 결집된 형태로 출현할 때마다 민족사회 구성원들의 폭넓은 지지와 공감속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가는 청소년운동의 비전

과 지향이 얼마 만한 것이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문제는 항상 청소년 운동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민족운동의 중추세력화하여 민족의 난국을 극복해가는 데에 있어 기성층간의 이해대립과 이념적 분열, 권위주의적 사고방식등을 이유로 민족운동이 분열된 것에 우리 근대사의 비극이 있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일제하에서 전개된 청소년 운동의 건강함과 현실적합성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권위주의적 정치구조와 청년학생운동의 정치, 사회참여와 갈등

해방후 우리 역사가 빚었던 혼돈은 근본적으로 일제하를 통해서 민족운동의 중추로 부상한 청소년운동을 민족지도자들의 내적 분열과 이의 권위주의적 적용을 통하여 청소년운동의 자기분열을 결과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제하에서 민족주의적 자기지향을 체질로 성립시킨 우리의 청소년운동이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왜곡되었던 것은 우리 청소년운동이 가장 크게 받은 상처의 하나일 것이다. 이것은 곧 민족대 국가의 대립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해방후 분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우리의 사회적 지도이념에 있어서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념에 있어서까지 혼란과 왜곡을 초래하였던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 통일된 민족국가 *nation state*의 상실이라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운동을 일제하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유산에 충실되게 민족국가를 추구하였으며, 그 이념적 내용이 분단이라는 상황하

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형태로 표출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그러한 기성 이데올로기의 틀안에 속박될 수는 없는 새로운 창조적인 자기 전망속에서 4.19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표출되었다고 본다.

3) 민주시민사회의 건설과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청소년운동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근대화라는 이념속에서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적 부를 축적해가는 과정속에서, 그리고 이에 따른 급격한 사회적 변동, 가족의 해체, 지역적 유동성의 증가라는 사상유례 없는 변동을 경험하면서 청소년운동 또한 우리의 근대사속에서 물려받은 전통을 대부분 상실하고 새로운 사회가 요청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교육의 경직된 틀안에서 민족사회 발전의 질적 차원을 새롭게 창조해 낼 수 있는 창조성을 거세당하고 대단히 왜소한 형태로나마 그 운동의 맥을 지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한이 없지만, 늘 지적되는 것처럼 평준화를 명목으로 하는 사립학교교육의 고유한 전통의 박탈,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문화활동의 장이어야 할 청소년운동의 국가적 제도화, 입시교육의 불철저한 개선을 통한 청소년들의 자율적 여유의 철저한 파괴, 인력의 양산으로 그칠 뿐 늘 한탄되는 것과 같은 교육철학의 부재...이같은 문제들이 사실은 지난 60년대 이래 우리의 청소년운동의 지평을 이루어왔던 우울한 현실들이었다. 불행하게도 여기에 덧붙여 청소년운동의 청소년문제로 이해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환경의 부파에 따른 불가피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청소년층의 반응일 수 밖에 없는 일종의 일탈현상은 "이유

없는 반항”으로 왜곡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까지 거의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계의 진지한 논의조차 사회의 기능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제외한 청소년들의 교육심리학적 진단에 머무르고 청소년운동에 대한 토론까지도 청소년 시설의 확장과 같은 대단히 물량주의적인 가치관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사회의 현실적 진단과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시대의 청소년운동은 결국 민주시민사회 건설과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운동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고 그같은 지향성을 갖지 못하는 청소년운동에 대한 논의는 역사성과 사회성을 배제한 추상적인 청소년상에 대한 이해나 서구의 근대적 가치관에 입각한 개인주의적이고 가족단위에 머무르는 대단히 협소한 교육적 시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듯 하다. 실제로 오늘의 청소년을 현장에서 대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놀랍게 발전한 청소년들의 창조적인 잠재력이다. 문제는 이같은 뛰어난 잠재력에 방향을 부여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의 사회적 역사적 과제의 해결주체로 청소년운동을 발전시켜가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적 편견, 혹은 제도적 규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같은 의식속에서 적절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적 조치들만 취해 나갈 수 있다면 한국의 청소년운동은 민주시민사회의 건설과 민족의 평화통일이라는 과제를 성숙하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3. 오늘의 청소년문제와 한국 청소년의 미래상

협의의 의미에서 청소년문제는 사회적 일탈 행위와 관련된 비행청소년들의 문제로 논의되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문제를 논의한다고 할 때에는 청소년일반, 그리고 그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환경, 사회화의 과정속에서 청소년들이 부딪치는 문제와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직간접적인 제도적 장치와 교육적 수단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의 청소년 문제란 곧 현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문제들과 직결되며, 청소년 정책이란 소극적으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문제들로부터 어떻게 청소년들을 지켜내고, 적극적으로는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창조하고 나아가 기존의 사회문화를 새로운 가치에 입각한 전망에 의거하여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늘의 청소년문제란 근대 이후 우리의 사회와 역사가 겪어온 질곡속에서 문제로 남아있는 제반 사회적, 역사적 문제들 속에서 찾아져야 하며 이를 논제에서 제외하고 청소년문제를 운위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논의에 그치고 말 위험이 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 오늘의 청소년 문제를 낳는 근본요인은 물량주의적 가치관, 기회주의적 태도, 가치와 형태의 이율배반 등과 같은 기성문화의 왜곡된 편린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그러한 가치들이 통용되는 현재의 질서를 그대로 놓아둔 채 이를 금기시하는 역시 모순적인 교육과정에 문제의 일단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회현실이 쉽게 바뀔 수는 없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회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중매체나 생활환경, 적극적인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의 기능약화 등을 그대로 방지하는 상황에서는 청소년문제 해결의 대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왜 언론의 민주화문제는 청소년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불법적인 향락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한 대책은 청소년문제의 전문가들과는 무관하게 수립되어야 하는가? 모처럼 권장하던 가정의 날이 우리사회의 발전여건상 무리였다고 하더라도 근로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이를 통하여 가정의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회교육적 측면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여건만을 운위하는 정부의 정책에서 청소년문제가 어떻게 풀리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러한 문제의 본질적 영역을 제쳐놓고 청소년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수립하게 될 때 그것은 항상 사회적 일탈행위로서의 청소년문제만을 뒤쫓아 다니게 된다는 점은 그간 너무도 분명하게 입증되었던 것이 아닌가?

사회가 청소년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현실적으로 한계에 와 있다고 할 때에 이 문제를 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성실한 태도는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을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일이다. 이는 곧 청소년운동의 주체를 청소년 자신들에게 되돌리는 일과도 통한다. 이에 관한 한가지 재미있는 예가 최근의 환경교육속에서 발견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의 부추김을 통하여 가정에서 부모들이 환경에 유해한 물품들을 소비하는 데 스스로 절제를 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은 현실서속에서 기성의 사회문화가 품고 있는 문제를 솔직히 시인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이다. 이러한 사실의 인정은 결코 청소년들에게 문제의 오염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 방향으로 청소년들의 형태를 방향지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문제해결의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문제에 대한 사명감까지도 갖게 되며 그러한 책임의식속에서 스스로를 훈련하여 지도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지적되듯이 청소년들의 이상적인 가치관은 사회적, 역사적인 맥락과는 무관하게 진공속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문제해결의 주체임을 발견하게 될 때라야만 비로소 자신들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회적 비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미래상은 청소년들 스스로가 창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사회가 할 일은 결국 이러한 청소년들 스스로의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 여러가지 제약여건속에서 마음껏 펼쳐나지 못할 때 이를 지원하고 격려하여 활동의 영역과 폭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돕고, 보다 더 넓은 경험의 영역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창조성의 바탕을 더욱 풍성하게 살찌울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는 것이다. 청소년 단체의 역할이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청소년운동과 무관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간 우리 사회의 청소년단체 활동의 대부분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이에 는 무엇보다도 이를 외적으로 규제하는 교육정책, 법적 제도적 장애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II. 한국의 청소년과 청소년단체

1. 청소년단체 활동의 기본방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이 마련한 “한국청소년 기본계획 시안”(1991.4)은 청소년기의 활동을 고유영역(학업, 근로, 복무 등), 수련영역, 임의영역(자유활동)으로 구분하고, 청소년단체들이 실시해 오던 사업을 수련영역이라는 제도권 내의 활동으로 수렴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장기적 종합 계획이다. 이 계획은 수련영역과 관련된 사업으로 수련거리(프로그램, 사업)의 개발, 수련터전(장소, 시설, 설비)의 단계적 확보, 청소년 지도자의 제도적 양성·배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청소년단체의 육성’은 ‘자율적인 방법으로 청소년의 상호 우의증진과 현장감 있는 수련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수련거리의 종류별로 자율적 운영 능력 있는 단체의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의 청소년단체도 이 기본 계획에 따라 육성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간 청소년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 계획이 없었던 점에서 위의 계획은 일단 환영할 만한 것이고, 또 청소년단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점에서도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청소년단체들을 수련거리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청소년단체의 정신과 기본 목적을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회색시키고 지원을 구실로 청소년단체의 운영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청소년단체는 미래 사회의 주체인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기본 목적을 두고, 사회 발전에 참

여·봉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자율적 문화를 형성시켜 주는 활동을 하는 민간사회단체를 지칭한다. 이들 단체는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전망 속에서 서로 다른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단체 활동의 기본 방향은 미래 사회의 주체인 청소년이 스스로의 주체성을 신장시켜 가는 과정으로서 급변하는 사회 현실을 감안하여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정신과 문화를 폭넓게 모색해 가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학교교육의 한계성이 노정되고, 사회는 성인중심으로 통합되고 그것이 오염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단체는 단순히 청소년 문제에 대처하거나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가능성이요, 오늘의 새로운 현실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단체의 기본적인 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청소년을 미래 사회의 주체로 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회의 한 주체로 보고 그들 자신의 문화와 세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청소년단체를 통한 경험이 통제적 집단주의가 아닌 진정한 공동체적 협동일 때 비로소 함께 어울려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자질이 길러질 것이고, 오늘의 청소년 문화가 비로소 성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비행 청소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청소년 문제를 보고 이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실효성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의 문제가 바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책임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러한 문제 행동의 가능성이 청소년 모

두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해 환경이나 불우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비판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말인데, 현 사회 상황에 대한 비판적 능력이 없이는 사회 도처에 널려있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영향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셋째,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도력을 더욱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단체의 지도자는 프로그램의 수행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망하에서 그런 삶을 몸소 보여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청소년단체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청소년단체에는 청소년지도육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청소년단체와 그 단체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활동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사회단체(유관기관, 단체, 협회 등) 등 여러 형태가 포함된다. 현재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하고 있는 단체가 31개이고 기타 비가입단체를 포함하면 50여개가 된다. 이중 어떤 것은 규모가 크고, 어떤 단체는 매우 적은 경우도 있다. 이들 단체들은 가입대상 청소년들이 학생, 근로자, 농촌 청소년 등 특정 집단인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설립 목적과 이념에 따라서 이들 대상과 사업이 다르기도 하고 비슷한 경우도 있

다. 세계적인 조직도 있고, 특정지역에만 있는 것도 있다. 역사도 다르다. 어떤 단체는 관과 가깝고 어떤 단체는 관과 대립적이고, 지원받는 것도 다르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활동의 현황을 일반화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편이라는 점이다. 청협 가입단체 회원수를 합산해 보면 전체 청소년의 22.8%가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각 단체별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재조사한 결과 청소년 회원수(12~24세)는 1,767,071명으로서 전체 청소년인구의 12.9%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중에서 대학생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한다면 중고등학교 연령층의 청소년이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더 적어진다. 스웨덴의 경우 70%, 독일의 경우 25%가 클럽이나 협회에 가입하고 있고, 미국은 교육과정으로 클럽활동을 한다. 회원 가입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소년단체 실무자가 느끼는 최대의 문제는 재정적 어려움에 있다. 정부의 지원이 충분치도 않고 과정이 까다롭고 지원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정단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 등 일반 사회기관의 협찬을 받는 문제도 제도의 미비로 광고 효과가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면 기대하기 어렵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의 단체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가 낮으므로 부모에게 충분한 회비나 참가비를 요청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봉사 차원

의 활동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지도자나 실무인력을 확보하고 지도력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재정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3. 청소년단체의 사업이 시설에 의존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전개되는 것은 문제이다. 어떤 의미에서 청소년운동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강력한 효과와 영향을 발휘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의 중요성을 간과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시설의 경우만 하더라도 청소년 시설의 사회적 배분의 문제가 있으며, 시설자체를 제어하는 종합적인 교육계획의 빈곤이 내용과 형식의 괴리를 결과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자율적 활동의 내용을 강화하고 풍성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이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 그간 얼마만큼의 사회적 투자가 있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상 그간 청소년들의 자율적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해 온 것은 제도교육의 차원에서 투자되어 온 것과 비교할 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투자가 빈곤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속에서 실제로 실행되어 온 프로그램이란 것도 국적이 불분명한, 따라서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도 의심스러운 정체불명의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에 대한 교육적인 평가자책도 거의 없었다는 점은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문제이다.

III. 청소년단체의 활성화 방안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청소년의 세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부문과 사람들의 자기 위치에 맞는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청소년단체, 청소

년들 자신, 그 부모들, 관련 국가 기관, 여타 사회 각부문의 총체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그 뒷받침되는 만큼 청소년단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1. 청소년단체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청소년단체 자신이다. 열악한 여건에서 청소년단체를 이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청소년단체 자신이 그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단체를 위해 힘을 보태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고 있지 못한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용인해 버릴 수만은 없는 일일 것이다.

우선 청소년단체는 자기 목적을 사업에 분명히 드러내고 자기 영역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쌓아가야 하리라고 본다. 물론 목적을 갖고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이 청소년의 주체성을 파괴하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청소년단체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주체성은 오염된 사회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잘못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데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에서의 분명한 목적 의식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세계를 보는 안목을 높이고 주체성을 신장시키는 것이 되도록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오늘의 청소년 대중의 문화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기성사회가 그들에게 강요한 것이라는 데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목적이 분명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리라고 본다.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게 한다는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극기훈련 등 군사문화의 잔재가 흔히 발견되곤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프로그램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한다. 반면, 환경문제, 소비자 문

제, 교육 문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보다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다.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지도자이다. 청소년단체는 자기 자신의 목적과 전통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력의 발굴과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청소년단체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가 기관이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지 여기저기 다 간섭하려고 하면 오히려 청소년단체가 갖고 있는 생명력을 죽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시안”은 고교내신제를 학력 위주의 단일 기준에서 특기, 취미, 사회활동, 수련활동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학전형을 자율화하며 입학정원을 넓히는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입시를 위한 학력 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청소년단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도자로 “수사”를 두고 청소년단체에 대해서는 수련거리 중심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방안이 청소년들의 단체참여를 촉진할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앞에서 염려한 대로 청소년단체들의 다양한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단체의 정신과 전통을 무시하고 획일화된 연수 과정을 통해 그 지도력을 인정하게 되어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그것이 어떤 외형적 질서나 양적 팽창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청소년단체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청소년단체를 유

지·지행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단체의 정신과 전통, 목적의식이기에,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유관단체와 인사들의 중지를 모아서 시행해야 한다. 위의 시안들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연구활동 지원, 시설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일 것이다. “지원 기준”의 문체도 사업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활동 성과를 반영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추후 추진하는 과정을 밝음으로써 각 단체의 특수사정과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정 지원의 근거가 주로 수련거리로 되어 있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 최소의 자격을 갖추고 교내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단체들이라면 모두 학교내 활동이 쉽게 가능하도록 해주고, 이것만을 전담하는 교사의 채용이나 청소년단체 지도자의 교내 지도를 검토할 수 있겠다.

또한 기업이나 일반 사회단체가 청소년사업에 투자하고 청소년단체를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리라고 판단된다. 각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단체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적어도 지방정부는 충분히 청소년 시설을 마련하고 그밖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결국 청소년단체 활성화의 최종적인 주체는 사회 전체이다. 사회가 청소년단체의 존재의의에 대하여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국가

기관이 그 지원을 위해서 노력할 리가 없고, 청소년단체의 활동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관심은 그것이 어떤 차원의 것인가도 중요하다. 단순히 비행의 예방이나 혹은 체제 내 순응 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이 추진된다면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의 창조적 문화를 형성해 낼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의 청소

년은 기성사회의 요구와 오염에 의하여 심각하게 억압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가능한 대로 제거해 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는 노력이어야 한다. 청소년 문제가 점점 더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일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청소년을 문제집단지해서 오히려 억압하려고 들어서 안될 것이다.